

## 니체 철학의 사회철학적 재구성 흐름에 대한 비판적 점검: 공동체주의와 대안적 독법을 중심으로

김도윤\*

### 【논문개요】

본 논문은 그간 한국 정치·사회 철학 담론에서 주목받지 못한 여러 가지 니체 독법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정치·사회 철학계는 공동체와 개인(보편과 개별)의 대립 극복을 위해 주로 독일 전통의 이론에 의존한다. 그러나 니체 또한 독일 전통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 옹호 철학으로 쉽사리 취급받고, 그와 관련된 깊이 있는 정치·사회 철학 담론이 형성되지 못했다. 그는 주로 푸코와 들뢰즈로 대표되는 현대 프랑스 철학을 거쳐 간접적으로 참조될 뿐이다. 니체로는 공동체 혹은 사회에 관한 긍정적인 철학 논의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니체 연구자에게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곤 했다. 그러나 21세기를 기점으로 하여 영미권 니체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존 견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니체의 정치·사회 철학적 면모를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이 글은 그들의 최근 논의를 정리 및 검토한다. 우선, 전통적인 해석 방법인 개인주의 니체 독법의 주요 주장을 짚고, 공동체주의 니체 독법과 다투게 될 쟁점 사안을 정리한다(2장). 개인주의 니체 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등장한 공동체주의 니체 독법을 쟁점에 맞추어 소개하고(3장 1절), 그 한계를 짚어 본다(3장 2절). 그 후, 공동체주의 니체 독법의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그 한계를 극

---

\*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석사

복하려 하는 두 대안적 독법을 살펴볼 것이다(4장과 5장). 마지막으로, 대안적 독법들이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6장).

주제 분류: 사회 철학, 정치 철학

주요어: 니체, 줄리언 영, 모드마리 클락, 모니크 원덜리, 크리스틴 스완튼,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 1. 들어가는 말

‘누칼협’과 ‘알빠노’는 2020년대 한국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유행어이다. 전자는 ‘누가 칼 들고 그렇게 하라고 협박함?’의 축약어이고, 후자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에 ‘-노’를 붙인 후 축약한 단어이다. 두 단어는 함께 공동체를 영위하는 타자에 대한 무관심을 표현한다. 더불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며 폭력을 가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감추기도 한다. 정치·사회 철학의 여러 이론이 각자의 준거점을 갖고 이렇게 극단적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분투 중이다. 한국에서는 그 이론적 도구로 독일의 정치·사회 이론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헤겔의 주노 변증법, 마르크스주의, 호네프의 인정이론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니체는 여타 독일의 정치·사회 철학과는 달리 개인주의 옹호 철학으로 쉽사리 취급받고, 그와 관련된 깊이 있는 정치·사회 철학 담론이 형성되지 못했다. 니체는 주로 푸코와 들뢰즈로 대표되는 현대 프랑스 철학을 거쳐 간접적으로 참조될 뿐, 그의 저작을 통해 정치·사회 담론을 구성하려는 시도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니체로는 공동체 혹은 사회에 관한 긍정적인 철학 논의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니체 연구자에게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곤 했다. 그러나 21세기를 기점으로 하여 영미권 니체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존 견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니체의 정치·사회 철학적 면모를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만약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우리

는 니체에 다른 철학자들의 논의를 덧붙이지 않으면서도, 그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치 있는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다.

본 논문은 그간 한국 정치·사회 철학 담론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공동체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여러 가지 니체 독법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전통적인 해석 방법인 개인주의 니체 독법의 주요 주장을 짚고, 공동체주의 니체 독법과 다투게 될 쟁점 사안을 요약한다(2장). 개인주의 니체 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등장한 공동체주의 니체 독법을 쟁점에 맞추어 소개하고(3장 1절), 그 한계를 짚어본다(3장 2절). 그 후, 공동체주의 니체 독법의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하려 하는 두 대안적 독법을 살펴볼 것이다(4장과 5장). 마지막으로, 대안적 독법들이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6장).

## 2. 개인주의 니체 독법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전통적인 개인주의 독법을 간략히 짚고 쟁점을 정리한 후, 그에 맞서는 공동체주의 해석과 대안적 해석을 소개하려 한다. 전통적인 독법에 따르면 니체 철학은 개인주의 철학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 독법은 니체 연구의 밑바탕이 된 카우프만(Walter Kaufmann)과 네하마스(Alexander Nehamas)가 제공했으며, 이후 많은 현대 니체 연구자들도 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니체는 더 강하고 고귀한 소수의 인간 유형의 번성에만 관심을 가졌으며, 그의 엘리트주의는 독단적인 자기 창조를 위한 것”이라는 아펠의 해석이나, “니체 철학은 사회와 그를 구성하는 대중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것들은 비범한 개인을 만드는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지닌다”라는 레이터의 해석이 있다.<sup>1)</sup> 상당수의 정치·사회

1) Appel, Fredrick, *Nietzsche contra Democracy*, pp. 1-2; Leiter, Brian, *The Routledge philosophy guidebook to Nietzsche on morality*, p. 269, pp.

철학 담론이 이러한 독법에 따르고 있으며, 한국 철학계도 예외가 아니다. 문성훈의 경우, “각 개인이 어떻게 서로 갈등 관계에 빠지지 않고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집중한 칸트와 달리, 니체를 “각 개인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집중한 철학자로 규정한다. 이어서 그는 니체 철학에 따라 사회를 구축할 경우, “각 개인은 규범적 보편성을 자신에 대한 동질화 억압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해방을 통해 자신만의 특수성을 추구”하는 현실이 만들어지며 결국 그 사회는 파멸의 길에 이른다고 비판한다.<sup>2)</sup> 이렇게 니체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개인주의를 옹호하는 철학으로 비추어졌는데, 그 공통분모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sup>3)</sup> 첫째, 니체에 따르면 비범한 개인만이 삶의 번성(flourishing)과 의미 있는 삶을 성취할 수 있다.<sup>4)</sup> 둘째, 니체에 따르면 비범한 개인은 도구적 가치를 지니지 않고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를 지니며, 그것이 인간 존재의 최종 목적이다. 셋째, 니체에 따르면 비범한 개인의 번성은 대중을 대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기반하여 개인주의적 니체 해석은 다음과 같이 형식화될 수 있다.

형식화된 개인주의적 니체 해석①: 니체에게 최고의 가치는 비범한 개인의 번성이고, 그들의 번성은 대중을 대가로 하기에 극단적인 개인주의 철학이다.  
 형식화된 개인주의적 니체 해석②: 비범한 개인은 내재적 가치를, 대중은 그를 위한 도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극단적인 개인주의 철학이다.

---

301-302.

- 2) 문성훈, 『현대성의 자기 분열: 개별적 자아의 해방과 보편적 이성의 실현』, p. 159.
- 3) 개인주의 니체 해석의 공통점들을 다음처럼 구분하여 나누는 방식은 줄리언 영의 설명을 따랐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해석에 의존한다. Young, Julian, *Nietzsche's philosophy of religion*, pp. 190-191.
- 4) 논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니체가 자신의 이상적 인간 유형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수사적 표현인 ‘비범한’, ‘고귀한’, ‘예외적인’, ‘성숙하고 강력한’ 등을 모두 ‘비범한’으로 통일했다.

그렇다면 개인주의적 니체 해석을 지지하는 자들과 이에 반대하는 자들 사이의 쟁점은 다음의 셋으로 정식화될 수 있다. 첫째, 니체에게 최고의 가치는 비범한 개인의 번성인가? 둘째, 니체가 말하는 비범한 개인은 정말로 자신의 번영을 위해 대중의 희생을 요구하는가? 나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니체를 개인주의 철학이라고 규정지을 좋은 이유가 되는가? 셋째, 비범한 개인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가? 대중이 비범한 개인을 위한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그들은 내재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것과 등가 표현이기는 한가? 즉, 내재적 가치 혹은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면 다른 한쪽의 가치는 지니지 않는 것인가?

### 3. 공동체주의 니체 독법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전통적인 해석은 정치·사회 철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니체 해석가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 영미권의 니체 해석가들이 전통적 니체 독법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니체 철학은 개인주의적 철학이라는 오랜 믿음은 깨졌다.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독법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줄리언 영(이하 영)은 “니체 철학은 개인주의 철학이 아니라 공동체주의적 철학”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장에서는 영이 어떻게 기존의 개인주의 독법을 비판하면서 니체를 공동체주의자로 구성해내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짚는다.

#### 1) 공동체주의 옹호와 개인주의 독법 비판

영은 니체의 주요 저작을 검토하며 “니체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공동체의 번성”이라고 주장한다.<sup>5)</sup> 일견 영의 주장은 비범한 개인을 찬미하는

---

5) Young, Julian, 위의 책, pp. 1-2.

니체의 구절들을 애써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영은 개인주의 독법과 마찬가지로 니체가 비범한 개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개인주의 독법이 “니체의 저서에서 자주 발견되는 공동체의 변성을 높이 평가하는 구절들을 배제”하는 문제점을 지닌다고 비판한다.<sup>6)</sup> 영의 논의가 지지받기 위해서는 니체가 공동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구절을 제시하는 동시에 공동체가 비범한 개인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야만 한다.

영은 자신의 저작 『Nietzsche's Philosophy of Religion』 전체에 걸쳐 니체의 주요 저작 곳곳에서 공동체의 변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구절이 있음을 제시한다.<sup>7)</sup> 심지어 그는 니체의 초기작 『비극의 탄생』에서부터 그것이 발견되며, 유사한 논조가 후기 저작까지도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영은 “신화가 없으면 모든 문화는 건강하고 창조적인 자연의 힘을 상실한다. 신화로 둘러싸인 지평이 비로소 전체 문화 운동을 통일시키고 완성한다. … 신화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추상적인 인간, 교육, 윤리, 법, 국가가 세워진다”라는 구절을 기반으로, “니체는 어떤 인간이나 개인도 신화 없이는 변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라고 피력한다.<sup>8)9)</sup> 즉, 영에 따르면 니체는 한 인간의 정체성, 의미,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의미 등이 신화에 정초한 에토스 —좋은 삶에 대한 공유된 개념— 에 기반한다고 보았으므로, 그의 최고 관심사는 개인의 변성이 아니라 개인의 변성을 지탱하는 공동의 에토스

6) Young, Julian (ed.), *Individual and Community in Nietzsche's Philosophy*, p. 1.

7) 영은 출간된 니체 저작 모두에서 자신 주장을 지지할 근거들을 찾아낸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상 일반적인 니체 사상 시기 구분(초-중-기)에 따라 시기별로 영이 제시한 근거 하나씩만 임의로 가져왔다.

8) 니체의 저작을 인용할 경우, 독일어 원전인 KSA(Sämtliche Werke: Kritische Studienausgabe in 15 Bänden) 에 대한 필자의 번역에 의존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의 국문 번역본들을 참조했다. Nietzsche, Friedrich, "Die Geburt der Tragödie", p. 145. 앞으로 니체 저서는 제목의 축약과 고유 번호, 전집의 권수 그리고 페이지를 명기하여 인용한다. 예를 들어 이번 인용구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GT 23; KSA 1, p. 145.

9) Young, Julian, *Nietzsche's philosophy of religion*, p. 27.

에 있다. 그리고 그 에토스는 “실증적인 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표본적인 ‘영웅’이나 ‘롤 모델’의 삶의 내러티브로 현현해 있다”라고 설명한다.<sup>10)</sup> 지금까지 드러난 영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니체 철학의 본질적인 관심사는 공동의 에토스이므로,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은 공동체의 번성이다. 둘째, 비범한 개인이라 여길 수 있는 ‘영웅’이나 ‘롤 모델’의 삶의 내러티브가 공동의 에토스가 무엇인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범한 개인은 도구적 가치를 갖는다.

영의 입장은 첫째 쟁점과 셋째 쟁점에서 개인주의 독법과 매우 큰 차이를 띄고 있다. 후자는 ‘니체 철학의 본질적인 관심사’와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을 비범한 개인의 번성이라고 보지만, 전자는 공동체의 번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동시에, 개인주의 독법과 마찬가지로 영은 니체 철학 속 비범한 개인의 입지를 인정하지만, 그 이유는 비범한 개인의 ‘표본’으로서의 효과 때문이다. 즉, 영은 비범한 개인에게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도구적 가치를 부여한다. 나아가 영에 따르면 니체의 관심사는 공동체 전체의 번성이기 때문에, 설령 비범한 개인과 대중이 주종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권적 위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대중의 번성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은 사실상 두 번째 쟁점에서도 개인주의 독법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sup>11)</sup>

영은 중기 저작인 『즐거운 학문』에서도 자신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를 찾는다. 영은 “규칙의 옹호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지구상의 고귀함이 드러나는 최후의 형태이자 정교함”이라는 구절을 인용한다.<sup>12)</sup> 그러면서 영은 “규칙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번성시키는 것”이므로, 니체가 말하는 “고귀함”을 갖추는 것은 곧 “공동체의 에토스에 대한 옹호와 헌신과 일치한다”라고 주장한다.<sup>13)</sup> 이를 바탕으로 영은 니체가 비범한 개인의 번성을 강조

10) 같은 곳.

11) 영을 포함한 대부분의 니체 해석가들은 비범한 개인과 대중들의 주종관계를 정치적 계급으로 이해하거나 압제적인 것으로 이해하길 거부한다. 영의 입장은 다음을 참고. Young, Julian, 위의 책, pp. 94-99.

12) FW 55; KSA 3, p. 418.

한 것은 그것이 곧 공동체의 에토스에 헌신하는 자의 변성이고, 공동체 에토스에의 헌신을 통해 공동체 전체는 변성할 수 있기에, 결국 그의 “최종적인 관심은 비범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다”라고 결론짓는다.<sup>14)</sup> 이번 구절을 통해서도 영은 첫째 쟁점과 셋째 쟁점에서 개인주의 니체 독법과 차이를 드러낸다.

영의 입장은 후기 저작 해석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그가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이해하는 철학자는, 우리 자유 정신들은, 가장 포괄적인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그의 양심은 인류 전체의 발전이라는 짐을 지고 있다. 이 철학자는 그의 양육 작업과 교육 작업을 위해 종교를 이용할 것이다.”<sup>15)</sup>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니체가 비범한 개인(여기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철학자”, “우리 자유 정신들”)에게 공동체의 변성(여기서는 “인류 전체의 발전”)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바꿔말해 비범한 개인은 일종의 “사회적 양심을 갖춘 자로, 단지 자신의 변성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변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로 제시된다.<sup>16)</sup> 이는 개인주의 독법과 달리 니체가 비범한 개인의 변성과 공동체의 변성이 양립 가능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비범한 개인에게 도구적 가치를 부여했음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다. 지금까지 영이 제시한 근거에 기반하여 그의 주장을 쟁점에 맞추어 정리하면 다음처럼 형식화될 수 있다.

형식화된 공동체주의적 니체 해석①: 니체는 꾸준히 비범한 개인의 변성에 관심을 가졌다. 동시에 그는 공동체의 변성에도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더 강조했다. 초기부터 후기까지 니체에게 있어 최고의 관심사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공동체의 변성이다.

형식화된 공동체주의적 니체 해석②: 니체는 비범한 개인과 그것의 변성

13) Young, Julian, 위의 책, p. 91.

14) 같은 책, p. 97.

15) JGB 61; KSA 5, p. 79.

16) Young, Julian, 위의 책, p. 140, p. 165.



을 위한 대중의 희생을 논했다. 하지만 희생의 최종 목적이 공동체 전체의 번성이기 때문에, 니체 철학에 따르더라도 대중의 번성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형식화된 공동체주의적 니체 해석③: 니체는 비범한 개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반적 대중보다 그에게 더 큰 가치를 두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비범한 개인은 공동체 번성의 수단이기 때문에 비교적 큰 가치를 지녔을 뿐이다. 그것은 내재적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도구적 가치를 갖는다.

## 2) 공동체주의 독법 비판

언뜻 보기에 영은 개인주의 니체 독법의 주장을 잘 반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논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논리적 결함의 문제와 귀속 가능 여부의 문제가 그것으로, 각각 순서대로 살펴본다.

첫째, 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sup>17)</sup> 영은 비범한 개인이 공동체 번성에 대한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통해 비범한 개인에게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 이는 논리적 비약이다. 공동체 번성이 비범한 개인의 수단일 뿐이므로 공동체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여긴 개인주의 독법과 항 사이의 관계만 변화시켰을 뿐, 그들이 범하는 오류를 똑같이 범하고 있다.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에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도구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는 다른 두 구별에 의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재적 좋음과 도구적 좋음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sup>18)</sup> 내재적 좋

17) Clark, Maudemarie, and Monique Wonderly, "The Good of Community", pp. 125-128. 참고.

18) 클락과 윈덜리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문헌을 참조했다고 설명한다. 필자는 그중 하나인 코스가드의 입장을 통해 비판을 재구성했다. 크리스틴 코

음이란 ‘어떤 것이 그 자체 속에 갖는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의 반대는 ‘어떤 것이 다른 원천에서 얻는 가치’를 의미하는 외재적 좋음이다. 도구적 좋음이란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의 반대는 ‘그 자체를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재적 좋음과 도구적 좋음은 서로 관계가 없으며, 어떤 것이라도 도구적 가치를 지니면서도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렇기에 영의 주장을 받아들여 니체 철학에서 비범한 개인이 공동체 번성을 위한 도구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비범한 개인은 여전히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으므로 형식화된 공동체주의적 니체 해석<sup>③</sup>은 틀렸다. 다시 말해, 니체에게 있어 비범한 개인이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통해 그의 철학을 공동체주의로 규정하려는 영의 작업은 근거가 부실하다.

둘째, 영의 해석이 정말로 니체의 입장으로 귀속 가능한지 의문이다.<sup>19)</sup> 이러한 비판은 공동선을 포함한 ‘공동의 것’을 솔하게 비판한 니체의 구절들이 영의 해석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생각에서 배태한다.<sup>20)</sup> 즉, ‘니체에게 있어 최고의 관심사와 가치 있는 것은 공동체의 번성’이라는 영의 해석이 공동선을 거부한 니체의 입장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영은 자신의 해석을 견지할 수 있다. 영의 주장에 따르면, 비범한 개인은 “현재 대중의 의견에 반대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로, 새로운 가치 창조를 통해 공동체의 번성을 이뤄내기 때문이다.<sup>21)</sup> 즉, 니체에게 ‘공동선’은 가치 창조를 통한 공동체의 번성 과정에서

---

스가드, 『목적의 왕국』, pp. 373-374.

19) Swanton, Christine, “Nietzsche and the ‘Collective Individual’”, pp. 175-179. 참고.

20) 대표적인 구절은 『선악의 저편』 43절이다. “‘공동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런 표현은 자기모순이다: 공동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항상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끝내 이럴 수밖에 없다: 위대한 것은 위대한 자를 위해, 심연은 심오한 자를 위해, 섬세함과 전율은 정제된 자를 위해 있다.”

21) Young, Julian, 위의 책, pp. 128-132.

허물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는 ‘공동체의 번성’과 ‘공동선’을 구별하고 있기에, 영은 위와 같은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견지할 수 있다. 한편, ‘니체에게 있어 최고의 관심사와 가치 있는 것은 공동체의 번성’이라는 영의 입장은 ‘모든 개인의 활동 목적은 공동체의 번성’이라거나 ‘모든 개인의 활동에 따른 이익은 공동체의 번성(이익)에 종속되어야만 함’으로 읽힐 수도 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지 않기 때문에, 영의 해석이 위 입장들을 함축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sup>22)</sup>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도 영은 성공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그는 “(니체에 따르면) 오직 소수의 인간만이 공동체 번성이라는 작업을 이룰 수 있다”라며, “모든 개인의 활동 목적이 공동체 번성이다”라거나 “모든 개인의 활동에 따른 이익이 공동체 번성에 종속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거부한다.<sup>23)</sup> 나아가 그는 자신 입장을 ‘니체에게 있어 사회적으로 고려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공동체의 번성’이라고 다시 정식화함으로써 비판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주의 독법을 옹호하거나 공동체주의 독법을 지지하지 않는 구절들을 근거로 영이 자신 주장을 펼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sup>24)</sup> 앞서 살펴봤듯이 영은 『즐거운 학문』 55절을 통해 “니체가 말하는 비범한 인간은 규칙의 옹호자이고, 규칙은 공동체의 번성을 위한 촉진제이므로, 비범한 개인이 갖는 덕성은 공동체의 에토스에 대한 옹호와 헌신과 일치함”이라고 주장한다.<sup>25)</sup> 하지만 그러한 구절 해석이 공동체주의를 지지하는 직접적 근거로 쓰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영의 말대로 비범한 개인의 덕성이 공동체 번성을 위한 촉진제라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 번성이 비범한 개인의 탄생과 교육을 위한 밑바탕이라고 한다면 개인주의 독법을 옹호하는 구절로도 여전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어느 한쪽 독법의 손을 들어주지

22) 개인 활동의 목적을 공동체의 번성보다는 개인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은 다음을 참조. GD Streifzüge 28; KSA 6, p. 129.

23) Young, Julian, 위의 책, p. 79.

24) Clark, Maudemarie, and Monique Wonderly, 위의 책, pp. 121-123, pp. 128-131. 참고.

25) Young, Julian, 위의 책, p. 91.

않고 개인주의적 요소와 공동체주의적 요소가 니체 철학 내에 혼재해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는 『선악의 저편』 257절과 258절을 통해 공동체주의의 니체 독법을 견지하는 영과는 달리 니체 철학의 개인주의적 면모를 살필 수 있다.

그러나 훌륭하고 건강한 귀족주의의 본질은 그것이 (군주제이든 공동체이든)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그것의 의미와 최고의 정당화로 느낀다는 것, —따라서 그것은 선한 양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불완전한 인간, 노예, 도구가 되어 억압받고 약화해야만 하는 무수한 인간 제물을 받아들인다. 그것의 근본적인 신념은 사회는 사회 자신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인 유형의 인간을 그것의 더 고귀한 의무로, 더 비범한 상태의 존재로 기르기 위한 허부구조와 틀로서만 존재해야 한다.<sup>26)</sup>

공동체가 비범한 개인 창출의 도구로, 비범한 개인의 육성 수단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위 구절은 개인주의 독법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도 영은 해당 구절은 “니체의 생각을 대변하지 않고, (니체가 이해한) 과거의 귀족주의자들이 사고한 방식”을 보여주는 구절일 뿐이라며 반박한다.<sup>27)</sup> 하지만 이러한 반박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영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다음과 같은 논리가 성립한다.

1. ‘비범한(여기서는 “훌륭하고 건강한”) 귀족주의의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의미와 최고의 정당화’라는 사고방식은 과거 귀족주의자들을 대변할 뿐, 니체를 대변하지 않는다.
2. (영 자신도 인정하듯이) 니체가 비범한 개인들의 귀족주의를 고대했다.<sup>28)</sup>
3. 니체에 따르면 비범한 개인은 공동체 번성의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

---

26) JGB 258; KSA 5, pp. 206-207.

27) Young, Julian, 위의 책, p. 135.

28) 같은 책, p. 69.

4. (니체는 자신을 공동체의 의미와 최고의 정당화라고 여긴) 비범한 개인들의 귀족주의를 고대했다. (1과 2의 연언)
5. (니체는 공동체 번성의 수단인 한에서 가치를 지니는) 비범한 개인들의 귀족주의를 고대했다. (2와 3의 연언)

그러나 주장 4와 5가 항상 양립할 수는 없다. ‘공동체 번성’이라는 목표를 위한 어떤 행위가 ‘자신을 공동체의 의미와 최고의 정당화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인 경우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더 확실하게는 “인간 유형을 향상하는 모든 일은 지금까지 귀족 사회의 일이었고,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반복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니체의 구절을 통해 반박할 수 있다.<sup>29)</sup> 이 구절을 받아들이면 다음의 논리가 성립한다.

1. ‘비범한(여기서는 “훌륭하고 건강한”) 귀족주의의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의미와 최고의 정당화’라는 사고방식은 과거 귀족주의자들을 대변할 뿐, 니체를 대변하지 않는다.
2. (영 자신도 인정하듯이) 니체는 비범한 개인들의 귀족주의를 고대했다.
3. 니체는 ‘과거·현재·미래 모두에서 귀족 사회가 인간 유형을 향상시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니체의 구절)
4. ‘비범한 귀족주의의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의미와 최고의 정당화’라는 사고방식은 과거 귀족주의자들을 대변하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에 있을 비범한 귀족주의자들을 대변한다. (주장 1과 3의 연언)
5. ‘비범한 귀족주의의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의미와 최고의 정당화’라는 사고방식은 니체의 사고를 대변한다. (주장 2와 4의 연언)

위 논리의 결론은 영의 주장 “비범한 귀족주의의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의미와 최고의 정당화’라는 사고방식은 과거 귀족주의자들을 대변할 뿐, 니체를 대변하지 않는다”와 정확히 대치된다.

---

29) JGB 257; KSA 5, p. 205.

4장과 5장에서는 영에게 제기된 두 비판을 각각 해결함으로써 앞선 두 독법을 대체하는 대안적 견해를 소개한다. 클락과 윈덜리는 비범한 개인과 공동체가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논리적 결함의 문제를 해결한다. 스완튼은 비범한 개인은 개인적인 것과 공동의 것 모두를 함양하는 덕성을 갖춘 자라고 분석해내며 귀속 가능 여부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로써 두 대안적 독법은 ‘개인주의나 공동체주의냐’라는 딱딱한 이분법에서 벗어나 제3의 길을 걷는다.

#### 4. 대안적 독법 (1) - 클락과 윈덜리의 경우

클락과 윈덜리(이하 클락)은 니체 철학을 개인주의 혹은 공동체주의 철학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대안적 견해를 펼친다. 앞서 소개한 두 독법은 니체가 비범한 개인과 공동체의 변성 중 한쪽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고 다른 한쪽에는 도구적 가치를 부여했다는 식으로 독해한다. 그러나 이 경우, 논리적 결함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3장 2절에서 확인했다. 따라서 클락은 니체의 견해는 비범한 개인과 공동체 모두 각자 내재적 가치를 가지면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을 취한다. 앞선 두 독법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주의 독법에 따르면 비범한 개인은 공동체의 의미와 최고의 정당화라는 점에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둘째, 개인주의 독법에 따르면 공동체는 비범한 개인 창출의 수단이기 때문에 도구적 가치를 갖는다. 셋째, 공동체주의 독법에 따르면 비범한 개인은 공동체 변성의 수단이기 때문에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

문제는 지금까지 논의에서 니체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내재적 가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설령 논리적으로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가 양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의 내재적 가치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거나, 니체가 공동체에 그러한 가치를 부여한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면 클

락의 논의는 설득력을 잃는다. 이에, 클락의 논의는 니체가 부여한 공동체의 내재적 가치를 밝힌 후, 그것을 부여한 이유를 설명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클락은 니체가 공동체에 부여한 내재적 가치를 밝히기 위해 그의 예술에 대한 가치 평가와 로마제국에 대한 찬사를 참고한다. 클락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비판하는 니체의 구절 “모든 예술은 … 칭찬하고, 찬미하고, 고르고, 선호한다”를 근거로, “니체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 가치의 표현 및 소통이라는 목적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석한다.<sup>30)31)</sup> 이어서, 클락은 니체가 로마제국을 최고의 형태를 갖춘 놀라운 예술 작품이라 칭송했다는 점을 통해, “니체는 자신이 이상적 공동체로 생각한 로마제국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했으며, 그 가치가 제국 공동체 내의 단일한 개인의 가치를 초월한다”라고 해석한다.<sup>32)33)</sup> 그리고 이 두 해석을 연결하여 니체의 이상적 공동체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면서도, 한편 그것은 예술 작품이기에 예술가의 가치를 표현하는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도구적 가치 또한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클락은 앞선 두 독법과는 달리 니체가 공동체에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모두를 부여했음을 밝히고, 영이 범한 논리적 결함의 문제를 해결한다.

니체 철학 속에서 공동체가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모두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이제 남겨진 문제는 니체가 부여한 (이상적) 공동체의 내재적 가치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내는 것이다.<sup>34)</sup> 클락은 개인 내면

30) GD Streifzüge 24; KSA 6, p. 127.

31) Clark, Maudemarie, and Monique Wonderly, 위의 책, pp. 132-134.

32) 클락이 인용하는 구절은 『선악의 저편』 58절이다. “로마제국은 어려운 조건들 밑에서 여태 이룩된 것 중에서 가장 웅대한 조직 형태이고, 모든 이전과 이후의 것들은 이것과 비교하면 미흡하고, 어설프며 딜레탕트적이다.”

33) Clark, Maudemarie, and Monique Wonderly, 위의 책, p. 135.

	내재적 가치	도구적 가치
공동체	?	비범한 개인의 창출을 위한 수단
개인	공동체의 의미와 최고의 정당화	공동체의 변성을 위한 수단

34) 지금까지 클락의 니체 해석에 의해 밝혀진 바를 표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의 구조와 공동체의 구조가 유사하다는 니체의 주장을 통해 그것을 밝혀낸다. 그가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은 다음 둘이다.

한 영혼 안에서 어떤 일련의 감정들이 가장 빨리 깨어나고, 지휘권을 얻고, 결정 내리는지가 그 영혼의 가치들 전체의 위계질서를 정하고, 그 영혼의 재산 목록을 정한다.<sup>35)</sup>

어쨌든 우리 몸은 많은 영혼의 사회일 뿐이다—그것이 곧 나이다. 잘 형성되고 행복한 모든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에서도 일어난다. 즉 지배계급은 공동체가 성취하는 것과 자신을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sup>36)</sup>

이를 통해 클락은 “잘 형성된 내면의 위계질서가 한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고, 그가 비범한 유형인지 아닌지 정한다”라는 점을 니체가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보인다. 달리 말해, 니체 철학에서 비범한 개인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데, 한 개인의 비범성 여부는 그 내면의 위계질서가 잘 형성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이상적 공동체와 비범한 개인의 내부는 유사한 구조를 취하기에 다음의 진술 또한 자연스레 성립한다. “공동체 내면의 위계질서가 잘 형성된 경우, 그 공동체는 이상적인 비범한 공동체이고, 그것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sup>37)</sup> 이를 바탕으로 클락은 “공동체의 (잘 짜인) 내부 구조가 그것의 최고 정당화인 비범한 개인을 돕고 창출할 수 있으며, 그러한 비범한 개인의 잘 짜인 내면이 그가 속한 공동체의 번성을 추구하게 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한다.<sup>38)</sup> 사실상 클락은 니체 철학 내에서는 비범한 개인과 공동체 모두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가지며, 그것들은 서로 얽히고설켜어 있음을 보인 셈이다. 만일 클락의 독법이 옳다면 이전 독법들이 범한 논리적 결함의 문제를 피하면서도, 개인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니

35) JGB 268; KSA 5, p. 222.

36) JGB 19; KSA 5, p. 33.

37) Clark, Maudemarie, and Monique Wonderly, 위의 책, p. 138.

38) 같은 곳.



체의 구절 모두를 빠짐없이 포섭할 수 있는 우수한 독법이다.

## 5. 대안적 독법 (2) - 스완튼의 경우

스완튼은 니체 철학을 개인주의·공동체주의 이분법 도식에서 사고하는 기존 시도를 거부하며 제3의 길을 택한다. 영과 같은 공동체주의자들은 ‘니체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공동체의 번성’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비범한 개인들은 공동의 것을 함양한다’라는 입장을 취한다.<sup>39)</sup> 반면 전통적 독해에 따르는 개인주의자들은 “니체에게 최고의 가치는 비범한 개인의 번성”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비범한 개인들은 개인적인 것을 함양한다’라는 입장이다.<sup>40)</sup> ‘공동의 것’과 ‘개인적인 것’의 대립 관계 때문에 두 입장은 양립 불가능해 보인다. 스완튼은 “(니체는) 이러한 딜레마가 기존 윤리학의 잘못된 개념에 따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거부”했다며, 비범한 개인의 덕성을 살펴봄으로써 이 딜레마를 논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41)</sup> 달리 말해, 스완튼은 앞서 영에게 제기된 첫 번째 비판인 귀속 가능 여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존의 개인주의·공동체주의 양자택일에서 벗어나려 한다. 스완튼의 독법에 따르면 비범한 개인은 개인적인 것을 함양하면서도, 타자를 해치지 않는 무자비하지 않은 자비에 기초한 정의로운 인간이고, 그 함양은 타자를 고려하는 윤리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스완튼에 따르면 비범한 개인은 “타자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하며”, “집단적-개인으로 행동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자”로, 무자비한 자가 아니다.<sup>42)</sup> 이는 개인주의 독법 쪽에서 비범한 개인의 덕성으로

39) 형식화된 공동체주의적 니체 해석① 참고.

40) 형식화된 개인주의적 니체 해석① 참고.

41) Swanton, Christine, 위의 책, p. 182.

42) HH1 94; KSA 2, p. 91.

제시하는 무자비함(cruel)은 그에게 귀속될 수 없다며 반박하는 셈이다. 즉, 스완튼은 ‘니체는 모든 인간이 무자비함이라는 기본적인 본능을 갖추고 있고, 그 본능을 발현하는 것이 좋다고 여긴다’라는 주장을 논박해야 한다.<sup>43)</sup>

스완튼은 니체가 말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은 “무자비함이 아니라 공격성(aggression)”이라며 반박한다.<sup>44)</sup> 공격성은 병들거나 퇴행할 수 있는데, 비범한 유형의 인간과 문화 일반의 번성을 악화시키는 것이 병든 형태이고, ‘무자비함’은 공격성의 퇴행적 형태로 제시된다. 나아가, 스완튼은 “니체는 무자비함을 발현시키는 것이 좋다고 여겼다”라는 통념적 견해에 맞서 “노예도덕보다는 낫다는 점에서 무자비함에 비교적 높은 가치를 부여했을 뿐”, 따를만한 덕성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sup>45)</sup> 스완튼은 비범한 개인(여기서는 “고귀한 인간”)이 가진 덕성과 그것이 퇴행한(zurücktreten) 형태인 “맹수와도 같은 양심의 순진함”을 구분하는 구절을 근거로 든다.<sup>46)</sup> 니체는 전자를 “풍습, 존경, 관습, 감사에 의해 ... 엄격하게 구속된 사람들”이라며 “서로에 대한 배려, 자제, 온정, 신뢰, 금지, 우정” 등의 덕성을 갖춘 자로 그려낸다.<sup>47)</sup> 반면 후자는 “일련의 살인, 방화, 능욕, 고문에서 의기양양하게 정신적 안정을 지닌 채 돌아오는 즐거움에 찬 괴물”이라며 “맹수적 양심의 순진함”을 덕성으로 가진 자로 그려낸다.<sup>48)</sup> 이를 통해 우리가 따를만한 덕성 —니체가 이상적으로 그려내는 비

43) 스완튼은 본문처럼 니체를 해석하는 방식을 시몬 메이의 책에서 인용하고 있지만, 필자의 해석에 따라 재구성했다. 또한 이러한 논리는 앞서 소개한 개인주의 독법의 대표자인 라이터의 입장이기도 하여 맥락에 맞춰 비도덕주의가 아닌 개인주의 독법의 입장이라고 옮겼다. May, Simon, *Nietzsche's Ethics and his War on 'morality'*, pp. 128-134; Leiter, Brian, 위의 책, p. 233.

44) 스완튼은 공격성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주장을 자신의 옛 논문에서 인용하지만, 해당 논문에서도 주장에 대한 좋은 근거를 찾기 힘들다. Swanton, Christine, 위의 책, p. 184; Swanton, Christine, “Nietzsche and the virtues of mature egoism”.

45) Swanton, Christine, “Nietzsche and the ‘Collective Individual’”, p. 292.

46) GM1 11; KSA 5, p. 275.

47) 같은 책, p. 274.

범한 개인이 갖춘—은 무자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알 수 있다.<sup>49)</sup>

둘째, 스완튼에 따르면 비범한 개인은 정의로운 자이다. 설령 비범한 개인이 무자비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가 오직 자신만을 고려(self-regarding)할 뿐, 타자를 고려하는(other-regarding) 자가 아니라면, 긍정적인 논변을 수립하기 힘들다. ‘니체가 말하는 정의는 강자의 잔혹함일

48) 같은 곳.

49) C 심사위원님께서 심사 의견에서 고귀한 인간을 기반으로 니체를 이해하는 스완튼의 주장이 “첨예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라며 필자의 생각을 물으셨다. 스완튼이 근거로 하는 니체의 텍스트에 대한 C 심사위원님의 해석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니체는 해당 부분에서 비범한 개인들은 그들이 이루고 있는 문화 속에서는 서로 간에 자제, 온정, 신뢰 등등을 보이지만, ‘외부로 향하게 되어 낯선 것, 이방의 것과 접하기 시작하는 곳에서는’ ‘무자비함’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즉, ‘고귀한 종족’은 자기네들 공동체와 그 밖의 공동체를 구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그들의 ‘근저’에 있는 ‘무자비함’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타적인 ‘공동체주의’를 바람직한 공동체주의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말씀을 요약하면, 스완튼이 옹호하는 ‘비범한 개인’은 낯선 이방의 것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고삐 풀린 야수와 다를 바 없기에, 그에 기반한 공동체주의는 배타적 성격을 띠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필자도 C 심사위원님의 해석대로 ‘비범한 개인’에 기반한 공동체가 배타적 성격을 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범한 개인에 기반한 배타적 성격의 공동체주의가 바람직하지 않은 공동체주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말씀대로 비범한 개인은 “낯선 것, 낯선 자와 접하기 시작하는 외부(sie sind nach Aussen hin, dort wo das Fremde, die Fremde beginnt)”에서 자신 근저에 있는 무자비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들은 무조건 “자기네들 공동체와 그 밖의 공동체를 구별”하고 ‘무자비함’을 표출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접한 공동체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비범한 개인(여기서는 “고귀한 인간”)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면, 낯선 것이 아니기에 무자비한 배타적 태도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반작용과 원한의 본능”을 가진 인간이 만든 공동체와 접했을 때는, 낯선 것이기에 무자비한 배타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만일 ‘외부에 대한 무조건적 환대’와 ‘바람직한 태도’가 같은 것이 아니라면, 부정적 가치를 지니는 공동체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평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자들을 희생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하는 기존의 강력한 개인주의적 독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스완튼은 비범한 개인의 덕성에 정의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정의는 무자비함의 실천도 아니고,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자들을 희생시키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한다.<sup>50)</sup> 이를 위해 스완튼은 『도덕의 계보』 2번째 에세이 11절을 통해 니체가 정의의 기원으로 무자비함이 아니라 능동적인 감정들을 지목한다고 주장한다.<sup>51)</sup> 이어, 스완튼은 니체가 말하는 정의는 자신의 이익을

50) Swanton, Christine, "Nietzsche and the 'Collective Individual'", p. 185.

51) 해당 구절에서 니체는 자신이 계보학을 통해 밝혀낸 것과는 다른 곳에서 정의의 기원을 찾으려는 시도를 비판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니체는 원한 자체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에 따르면 원한은 부정부주의자들과 반유대주의자들 사이에서 가장 잘 피어있다. 그러한 집단들은 "마치 정의를 근본적으로 피해 감정에서 발전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 마냥 복수를 정의의 이름으로 신성화"하거나, "복수와 더불어 모든 반동적 감정 일반을 회복"하려 시도한다. 우선 두 번째 시도에 관하여 니체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논박하지는 않지만, "증오, 질투, 시기, 불신, 숙원, 복수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과학적 공정성"은 원한의 정신 자체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과학적 공정성(반동적 감정)'은 그들과 대립하는 "생물학적·과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며 존중될 만한 지배욕, 소유욕 등과 같은 능동적인 감정들"이 문제시되자, 공정한 척을 중단하고 극단적인 적의와 편견을 드러낸다. 니체가 더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시도이다. 그것은 달리 말해 "정의의 고향은 반동적 감정의 영역에서 탐구되어야만 한다"라는 명제"로, 니체는 이를 단호하게 뒤집으면서 "진리를 위해 '정의의 정신이 정복한 최후의 영역이 반동적 감정의 영역이다'"라는 다른 명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니체의 이 주장은 같은 책 같은 에세이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의 종합으로 도출된다) 니체에 따르면 "올바른(just) 인간이 자신에게 해를 가한 자에게도 실제로 공정한 태도를 지니고, 개인적으로 상처를 입고 조롱과 비방을 당하면서도 공정하게 심판하는 객관적 눈"을 갖는 것이야말로, "지상에서의 하나의 완성이며 최고의 원숙함"이다. 그리고 이때의 정의에 훨씬 더 가까운 올바른 인간은 "반동적 인간"이라기보다는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인간"이다. 왜냐하면 "그는 반동적 인간과는 달리 자신의 대상을 그릇되게 편파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두 번째 에세이의 핵심이 드러난다.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인간은 "더 강하고 용기 있고 고귀한 인간으로서 더 자유로운 눈과 더 당당

위해 약자들을 희생시키는 것과 정반대의 것이라면서, 니체의 “온화한 자비”를 언급한다.<sup>52)</sup> 스완튼이 인용하는 니체의 문구는 다음과 같다.

정의는 지상의 모든 선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지양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정의의 자기-지양이 어떤 미명으로 불리는지 사람들은 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이며, ... 이것은 가장 강한 자의 특권이자 그가 가진 법의 저편이다<sup>53)</sup>

셋째, 지금까지 스완튼은 비범한 개인의 친-공동체적 면모를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제 스완튼은 비범한 개인이 개인적인 것도 함양하며, 그 개인적인 것이 사실은 친-공동체적임을 보일 필요가 있다. 스완튼은 “자신의 본성이 지닌 힘과 약점을 예술적 계획으로 옮김으로써 ... 자신의 성격에 스타일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구절이 개인적인 것의 함양에 대한 니체의 강조를 잘 드러낸다고 인용한다.<sup>54)</sup> 이 구절은 제멋대로 사는 삶의 방식을 니체가 찬미한 구절로 자주 오해되지만, 스완튼은 여기서 니체가 강조한 것은 “스타일에 제약이 존재하는 점”과 ‘자기의 법칙에 따라 성격에 스타일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통념에 반대한다.<sup>55)</sup> 즉, 니체가 자기 삶에 스타일을 부여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스타일에는 분명한 제약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니체는 “제약은 ... 오직 강력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 약한 성격은 지닌 사람들은 제약을 중요”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비범한 개인만이 자기 삶에 스타일을 부여하면서도 제약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명징하다.<sup>56)</sup> 나아가 스완튼은 이 제약이

---

한 양심”을 지녔을 정의에 가까운 인간이고, 원한에 가득 찬 반동적 인간은 자신의 양심에서 양심의 가책을 발견하는 자이다.

52) Swanton, Christine, 위의 책, p. 189.

53) GM2 10; KSA 5, p. 309.

54) FW 290; KSA 3, p. 530.

55) Swanton, Christine, 위의 책, p. 191.

56) FW 290; KSA 3, p. 530.

“윤리적 규범”이라고 설명하며, 비범한 개인의 개인적인 것 함양과 기꺼이 타자를 고려하는 행위가 구분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57)</sup> 이는 비범한 개인이 따르는 것으로 암시되는 “더욱 상위의 이익과 명예 개념”에 대한 분석에 기반한다.<sup>58)</sup> 해당 구절에 따르면, 비범한 개인(여기서는 “성숙한 집단적 개인”)은 자신의 이익이 “자신이 타자에 대해서, 타자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을 파악했으며, “보편적으로 영속적인 이익을 개인적인 이익보다 유익한 것으로, 순간적인 평가보다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타당성을 존중하는 평가를 더 중요시한다.”<sup>59)</sup>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비범한 개인은 자신 삶에 스타일을 부여하면서도 — 개인적인 것을 함양하면서—, 그 스타일에 가해지는 윤리적 규범이라는 제약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공동체(타자)를 고려하는— 덕성을 지닌 자이다.<sup>60)</sup>

57) Swanton, Christine, 위의 책, p. 192.

58) HH1 94; KSA 2; p. 91.

59) 같은 곳.

60) 스완톤의 니체 해석에 대해 C 심사위원님께서 “해당 구절에서 니체는 ‘집단적 개인’을 ‘지금까지의 도덕성의 최고 단계’에 위치시키고 있다. … (그러므로 니체가 앞으로 도래하기를 바라는) 비범한 개인은 이 ‘집단적 개인’의 단계를 넘어서서 등장”해야 하므로, 비범한 개인과 집단적 개인의 특성을 연결하는 것은 “명백한 오독”이라고 제언해주셨다. 말씀대로 니체는 해당 구절에서 “지금까지의 도덕성”에 대해 논하고 있으므로, 비범한 개인은 “지금까지의 도덕성의 최고 단계”를 넘어선 자일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넘어섬’이 이전 단계의 도덕성을 자기 내에 정립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범한 개인이 집단적 개인의 특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스완톤의 주장이 아주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의 구절에 등장하는 도덕성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보자면, 순서대로 각각 ‘처음으로 이성의 자유로운 지배력이 깨어나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계’, ‘오직 개인적인 이익이 이끌었던 이전의 단계보다 인간을 더 높이 고양하는 명예의 원리에 따라 행하는 단계’, ‘더욱 상위의 이익과 명예 개념에 따르는 단계’이다. 필자는 이로부터 이후의 단계가 이전 단계의 도덕성을 보존하면서 그것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분명 비범한 개인은 ‘더욱 상위의 이익과 명예 개념에 따르는 단계’를 넘어선 자이겠지만, 해당 도덕성을 위배하거나 아주 다른 형태의 도덕성을 따르는 자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비범한 개인과 집단적 개인의 특

이렇게 스완튼은 비범한 개인이 갖는 덕성이 ‘개인적인 것의 함양과 공동체의 함양 중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라는 이분법에 얽매이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귀속 가능 여부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개인주의 독법과 공동체주의 독법에 대항하는 제3의 독법을 제공한다.

## 6. 대안적 견해 비판

전통적인 개인주의 독법과 영의 공동체주의 독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등장한 클락과 스완튼의 논의는 정치·사회 철학 담론 속 니체 철학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들의 비판과 논의는 니체를 개인주의·공동체주의 이분법 도식에 맞추어 보면 문제가 발생하며, 두 요소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을 폭로한다. 그러나 그들의 논의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첫째는 논리적 문제로, 주장의 타당성이 의문스럽다. 둘째와 셋째는 적실성에 관한 것으로, 필자의 눈에는 니체의 비범한 개인 및 이상적 공동체에서 정의가 정말로 실현될 수 있는지, 비범한 개인이 행하는 자비가 자기 공동체의 안녕을 보장하는지 의문스럽다.

우선 가장 간단한 것부터 살펴보자. 니체가 공동체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했다고 주장하는 클락 논증의 핵심 근거는 니체의 예술에 대한 가치 평가와 로마제국에 대한 그의 찬사이다. 클락은 ‘니체가 로마제국을 최고의 형태를 갖춘 놀라운 예술 작품이라 칭송했음’으로부터 ‘니체는 로마제국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했음’을 도출한다.<sup>61)</sup> 하지만 이는 명백히 논리적 비약이다. 따라서 클락의 논증은 니체가 공동체에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모두를 부여했음을 밝히지 못했다는 치명적 결함을 지닌다.

---

성을 연결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61) 본 논문, p. 11.

둘째, 스완튼의 논의를 받아들여 니체 철학에는 정의라는 덕성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의가 최소한 논리적으로라도 실현 가능한지의 의문이다.<sup>62)</sup> 니체 철학을 따라가다 보면 정의로운 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평등이 요구되나, 그러한 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성장한다는 것은 좀 더 강력한 적수를 찾음으로써 드러난다. … 적과의 대등함이 … 정의로운 결투를 위한 첫 번째 전제”라는 구절을 근거로 한다.<sup>63)</sup> 즉, 비범한 개인으로(혹은 이) 성장 —개인적인 것을 함양— 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결투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니체 철학에서는 대등한 힘을 가진 자만이 자신과 대등한 자이므로) 자신과 평등한 자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비범한 개인과 공동체는 대등한 수준을 갖춘 적 —또 다른 비범한 개인— 을 번성시켜야만 한다. 정의로운 결투에는 대등한 상대가 요구되기에 그를 위해서는 현재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비범한 자신과 대등한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이는 같지 않은 것을 같게 만드는 행위로 이해된다. 한편, 니체는 다른 곳에서 “같지 않은 것을 절대로 같게 만들지 마라”라고 명하는 정의의 목소리를 논한다.<sup>64)</sup> 이로 인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도와 정의로운 결투를 하려는 것은 정의의 목소리를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모순적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두 구절 중 하나가 사실은 니체의 생각을 대변하지 않는다’라거나 ‘위와 같은 이해는 왜곡된 이해’라고 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을 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첫 번째 전략을 취하는 경우, 스완튼은 첫 번째 구절이 니체의 생각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구절은 자신도 주장을 위해

62) 해당 비판은 니체의 저작에서 귀족적 평등주의를 옹호하는 자원들을 찾아내는 미야사키의 시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Miyasaki, Donovan, “A Nietzschean Case for Illiberal Egalitarianism”, p. 165.

63) EH Weise 7; KSA 6, p. 274.

64) GD Streifzüge 48; KSA 6, p. 150.



근거로 든 것이기 때문이다.<sup>65)</sup> 그러나 첫 번째 구절의 출처는 니체의 자서전 격인 『이 사람을 보라』이기 때문에, 해당 구절이 니체의 생각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은 ‘위와 같은 이해는 왜곡된 이해’라고 거부하는 것인데, 입증 부담은 스완튼에게 있다.

셋째, 스완튼이 말하는 비범한 개인이 갖춘 타자를 고려하는 자비라는 덕성이 타자를 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스완튼은 비범한 개인이 타자를 위하는 덕성인 “온화한 자비”를 갖춘 자임을 보이기 위해 『도덕의 계보』 2번째 에세이 10절을 근거로 든다. 해당 구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니체는 해당 구절에서 강한 힘을 가진 자에 대해 논의한다. 힘이 강한 자는 “어느 사물이나 그 가격을 지닌다. 모든 것은 대가로 지급될 수 있다”라는 원시적 정의관과는 달리 “개인의 위법 행위를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sup>66)</sup> 이어 니체는 “정의는 ‘모든 것은 변상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변상 되어야만 한다’라는 명제에서 시작하여 잘못을 묵인하며 지급 능력이 없는 자들을 놓아주며 끝이 난다”라며, “이러한 정의의 자기-지양”을 “자비”라고 칭한다.<sup>67)</sup> 이는 “가장 고귀한 사치”를 부리는 사회는 “내 기생충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변성하게 두자”라는 구절에서도 확인된다.<sup>68)</sup> 스완튼의 해석대로 이 구절은 비범한 개인(여기서는 “강한 힘의 소유자”)이 채무자의 계약 위반에 무자비한 보복으로 대응하지 않는, 그것을 묵인하거나 용서하는 그의 자비로운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대가(고통) 상황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기에, 곧 약속 능력의 교육을 그만둔다는 것과도 같다.<sup>69)</sup> 그렇다면 ‘정의의 자기-지양’은 교육의

65) Swanton, Christine, 위의 책, p. 189.

66) GM2 8; KSA 5, p. 306; GM2 10; KSA 5, p. 309.

67) 같은 곳.

68) 같은 곳.

69) 약속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역설적 과제가 고통의 부여라는 교육을 통해 이

중단을, ‘기생충의 번성’을 의미하기에 공동체가 쇠퇴하는 요인이다.<sup>70)</sup> 결과적으로, 비범한 개인은 타자를 고려하는 덕성을 발휘해 자비를 행했지만, 그로 인해 공동체가 쇠퇴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 7. 나가는 말

지금까지 개인주의·공동체주의라는 정치·사회 철학의 맥락에서 니체를 읽어내는 세 가지 독법을 요약하고 비판 지점까지 소개했다. 전통적 독법은 개인주의 철학으로 니체를 읽어내는 방식으로, 니체 저작 내에 존재하는 공동체를 옹호하는 많은 구절을 설명해내지 못하며, 내재적 가치를 개인에만 부여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영의 공동체주의 독법은 개인주의 독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듯하였으나, 논리적 결함의 문제와 귀속 가능 여부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 후에는 개인주의·공동체주의 이분법 도식을 뛰어넘는 대안적 독법 두 가지를 알아보았으나, 그들 또한 타당성과 적실성에 관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비판적 독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긍정적인 형태로 니체 철학을 재구성하지는 못했지만, 니체 철학 내에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존재하는 듯하다. 좀 더 넓은 맥락으로 보았을 때, 본 논문은 분석적 전통에서 있는 영미권 니체 학계에서 형성된 조류 중 일부를 소개 및 검토하는 과제를 수행한 셈이다. 물론 그중 고작 하나의 흐름을 보였을 뿐, 남은 과제가 산처럼 있다. 다만 본 논문이 그 흐름을 간략하게나마 살필 기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니체 철학을 분석적으로 검토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폭력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정

루어졌음을 계보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도덕의 계보』의 전체 내용이다.

70)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 바람. 다니엘 콘웨이, 『니체의 『도덕의 계보』 읽기』, pp. 120-123.

차·사회 철학 담론에 니체도 일조할 수 있음을 보였길 바란다.

### 참고문헌

- 다니엘 콘웨이, 『니체의 『도덕의 계보』 읽기』, 임건태 옮김, 서광사, 2022.
- 문성훈, 「현대성의 자기 분열: 개별적 자아의 해방과 보편적 이성의 실현」, 『사회와 철학』, 제2집, 2001.
- 크리스틴 코스가드, 『목적의 왕국』, 김양현·강현정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07.
- Appel, Fredrick, *Nietzsche contra Democrac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 Clark, Maudemarie, and Monique Wonderly, “The Good of Community”, Young, Julian (ed.), *Individual and Community in Nietzsche’s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Leiter, Brian, *The Routledge philosophy guidebook to Nietzsche on morality*, Routledge, 2003.
- May, Simon, *Nietzsche’s Ethics and his War on ‘mor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Miyasaki, Donovan, “A Nietzschean Case for Illiberal Egalitarianism”, Knoll, Manuel, and Barry Stocker (eds.), *Nietzsche as political philosopher*, De Gruyter, 2014.
- Nietzsche, Friedrich, *Sämtliche Werke: Kritische Studienausgabe in 15 Bänden*, Colli, Giorgio and Montinari,azzino (eds.), De Gruyter, 2020.
- Swanton, Christine, “Nietzsche and the ‘Collective Individual’”, Young, Julian (ed.), *Individual and Community in Nietzsche’s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Swanton, Christine, “Nietzsche and the virtues of mature egoism”, May, Simon (ed.), *Nietzsche’s On the Genealogy of Morality A Critical Gui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Young, Julian (ed.), *Individual and Community in Nietzsche’s Philosophy*,

28 사회와 철학 제45집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Young, Julian, *Nietzsche's philosophy of relig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Critical Review on the Discourse of Rebuilding Nietzsche as social philosophy: Focus on the Communitarian and Alternative Readings

Kim, Do-Yun(University of Seoul)

###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various ways of reading Nietzsche as social & political philosophy that has not received attention in the South Korean research group. In South Korea, researchers tend to rely on German-tradition philosophies to overcome the split between the community and the individual(the universal and the individual). Yet, Nietzsche has been classified as a radical individualistic philosophy and excluded from the discourse. Or he only has been referred to indirectly through French philosophers represented by Foucault and Deleuze. This was widely accepted by Nietzsche researchers that, through Nietzsche, it is hard to construct positive arguments about community and society. But since the 21st century, Anglophone researchers have started to examine established readings and shed new light on Nietzsche's social & political aspects. This article organizes and criticizes their recent arguments. First, I will point out the main opinions of traditional individualism reading and clarify issues that will be contested by the Communitarian Nietzsche reading (Chap. 2). Next, I will introduce the Communitarian reading that emerged by pointing out problems of individualism reading focused on the issues (Chap. 3.1) and check their drawbacks (Chap. 3.2). And then, I will account for two alternative readings that accommodate Communitarian reading's good point and get over its problems (Chap. 4&5). Finally, I will try to analyze their arguments and check fallacies in alternative readings (Chap. 6).

30 사회와 철학 제45집

Theme classification: social philosophy, political philosophy

Key words: Nietzsche, Julian Young, Clark Maudemarie, Monique Wonderly,  
Swanton Christine, Individualism, Communitarianism

논문접수일: 2023년 01월 31일 논문심사일: 2023년 03월 23일 게재확정일: 2023년 04월 11일